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5.11.25

[중국/홍콩]
**박수진**
soojin.park.a@miraeasset.com

# 보이는 차이나

## 중국 전기차 산업이 직면한 현실과 전망


- 최근 개최된 '2025 광저우 모터쇼'는 중국 전기차 산업이 직면한 판매 둔화·경쟁 피로·기술 패러다임 변화 등 구조적 전환을 보여준 계기로 평가
- 내수 성장세는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 급증이 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부상. 정부는 공급측 개혁·보조금 축소·기술 기준 상향을 통해 산업 재편을 본격화하는 중
- 전기차 시장은 양적 확대에서 기술·효율·제품 경쟁력 중심의 질적 경쟁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경쟁력이 검증된 선도 기업 중심 전략이 유효


### 2025 광저우 모터쇼가 보여준 중국 전기차 산업의 '현실과 전환점'

2025년 광저우 모터쇼는 상하이·베이징보다 규모는 작지만, 매년 연말 중국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가늠하는 '풍향계'로 평가된다. 그러나 올해 전시회는 예년과 달리 화려한 신차 경쟁이나 공격적 마케팅이 크게 줄었고, 전기차 산업이 직면한 현실과 누적된 구조적 피로가 오히려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현지 언론의 평가가 이어졌다. 산업의 외형적 화려함보다 구조적 부담, 경쟁 재편, 기술 중심축 이동이 두드러진 전시회였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모터쇼"라는 평가가 나온 배경이다.

올해는 20개 이상 브랜드가 불참했다. 초고급 브랜드(롤스로이스·페라리·람보르기니·벤틀리 등)는 여러 회차 연속 불참했고, 중국 신생 전기차 브랜드도 대거 빠졌다. 이는 단순한 참석 여부가 아니라 모터쇼 ROI 하락, 마케팅 비용 효율화, 전기차 업계 전반의 자금 운용 압력 확대를 반영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반면 광저우자동차(GAC), BYD, 화웨이는 대형 부스를 전면 활용하며 존재감을 강화했다. 화웨이는 여러 완성차 기업 전시관에서 자율주행과 스마트 콕핏을 핵심 파트너 기술로 선보였고, 스마트카 솔루션은 처음으로 독립 부스를 꾸리며 기술 생태계 주도권을 부각했다. 여기에 CATL을 비롯한 로컬 공급망 기업들도 충전·저장·자율주행·스마트 콕핏·AI 등 전동화·지능화 핵심 기술을 대거 전시하며 완성차–테크기업–부품사 간 협력 구도가 더욱 강화되는 흐름을 보여줬다.

### 중국 전기차 산업이 직면한 현실과 전망

#### 1) 내수 둔화 vs 수출 급증: 중국 전기차의 성장 동력 재편

중국 전기차 침투율은 이미 5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지만, '양적 확장' 국면이 정점을 지난 이후 판매 증가율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장기화된 가격 경쟁, 세제·보조금 축소, 소비자의 구매 피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비야디 등 대형 업체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매출은 늘지만 이익률은 떨어지는 구조적 부담이 점차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2025년 하반기 들어 내수 전기차 판매 둔화는 더욱 뚜렷하다. 공격적 가격 인하에 대한 소비자 피로도, 취득세 혜택 축소, 이구환신 효과 감소, 완성차 업체들의 재고 조정 등이 동

시에 작용하며 내수 수요가 탄력을 잃고 있다.

반면, **수출은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5년 1~10월 전기차 수출은 200만 대를 돌파해 전년 대비 90% 이상 증가했으며, 중국 브랜드의 가격·성능 경쟁력이 해외 시장에서 빠르게 인정받고 있다. 수출은 내수 둔화를 보완하는 버퍼 역할을 하며 산업 가동률을 지지하고 있으며, 유럽·동남아·중동 등을 중심으로 중국산 전기차 침투율이 확대되면서 향후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2) 정책 기조 변화: 공급측 개혁 + 보조금 세제 정책 축소로 산업 구조조정 본격화**

지난 2년간 이어진 강도 높은 가격 경쟁은 산업 전반의 수익성을 훼손했고, 정부는 '과도한 경쟁(内卷)'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시장 구조조정에 착수한 상황이다. 국무원을 중심으로 판매가격 점검, 원가·마진 모니터링, 비정상적 저가 경쟁 정비, 중복 투자 및 노후 생산라인 정리 등이 추진되며 전기차 산업 전반에서 공급측 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특정 기업을 겨냥한 규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질서 정상화'와 '효율 중심 재편'을 목표로 한 구조적 조정이다. 태양광·리튬배터리 분야에서 이미 진행 중인 '반내권(反内卷)' 기조가 전기차 산업에도 확장되는 흐름으로, 과잉투자·중복 생산·저가 경쟁 등 누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단기 판매 확대나 보조금 중심의 수요 자극에서 벗어나, 기술 경쟁력·효율·제품 품질 중심의 성장 모델로 전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술·자본·브랜드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은 압력이 커지는 반면, 생산 효율·재무 체력·기술 내재화를 갖춘 기업에는 시장 점유율 확대의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보조금·세제 지원 정책은 2024~27년을 기점으로 구조적 변화 국면에 들어섰다. 2024~25년에는 신에너지차 구매세 면제(최대 3만 위안)와 이구환신(以旧换新)이 소비를 지지했으나, 2026년부터는 면제가 아닌 '50% 감면(최대 1.5만 위안)'으로 축소되며 단계적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이러한 변화는 딜러 채널의 연말 구매 유도, 완성차 기업의 취득세 보전 프로그램 등장 등 시장에 즉각적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세제·보조금 대상이 되기 위한 기술 기준도 대폭 상향되고 있다. 전기주행거리·배터리 안전·에너지 밀도·충전 효율 기준 등이 강화됐으며, 공신부(MIIT)는 저성능 모델의 선별적 지원 배제를 명확히 했다. 정책 기조가 '보조금 기반 수요 확대'에서 '기술 표준 기반 산업 고도화'로 이동하면서, 저효율·저성능 모델의 퇴출과 고성능·고효율 차량 중심의 구조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전기차 산업이 보조금 경쟁에서 기술·품질 경쟁 체제로 이동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술력·자본력·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선도 업체가 구조조정 국면에서 오히려 우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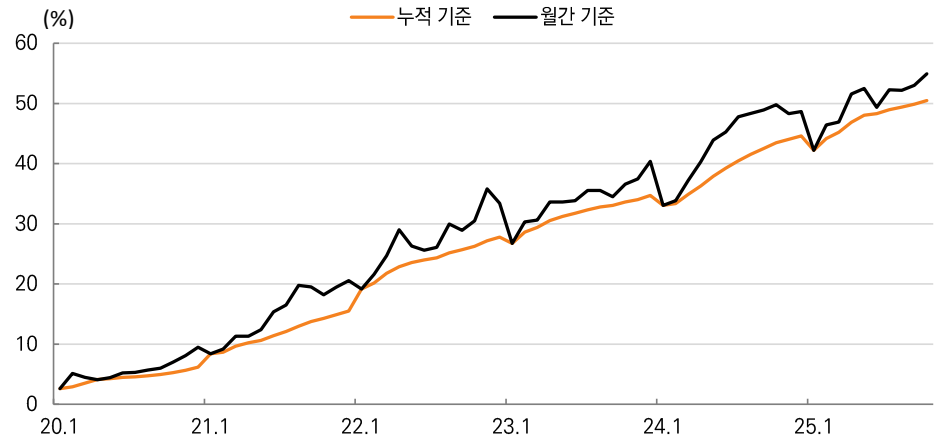
## 투자 시사점: 경쟁력이 검증된 선도기업 중심 투자는 여전히 유효

결국 중국 전기차 산업은 '양적 성장 국면'을 지나 '기술·효율·제품력 중심의 질적 경쟁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단순 판매량 확대보다 배터리·전력반도체·모터·소프트웨어·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을 내재화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수직계열화와 자금력, 글로벌

브랜드력이 생존의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 지속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 가격 전쟁 구간에서도 재무 체력이 흔들리지 않는 기업이 중장기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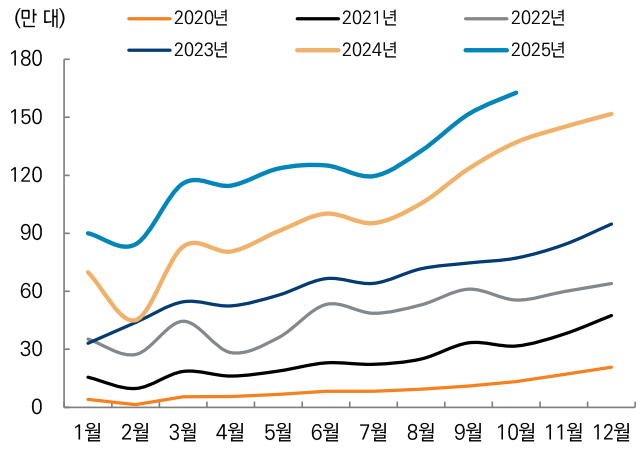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과 정책 정상화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키우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투자 기회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산업이 양적 경쟁에서 질적 경쟁으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장기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선별해 투자 포지션을 구축하기에 오히려 적절한 시점이다. 최근 조정으로 인해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아졌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전기차 산업이 구조조정 국면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는 비야디 (002594 CH/01211.HK), 샤오미 (01810.HK), 샤오펑 (09868.HK/XPEV.US) 등 경쟁력이 검증된 핵심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림 1. 중국 전기차 침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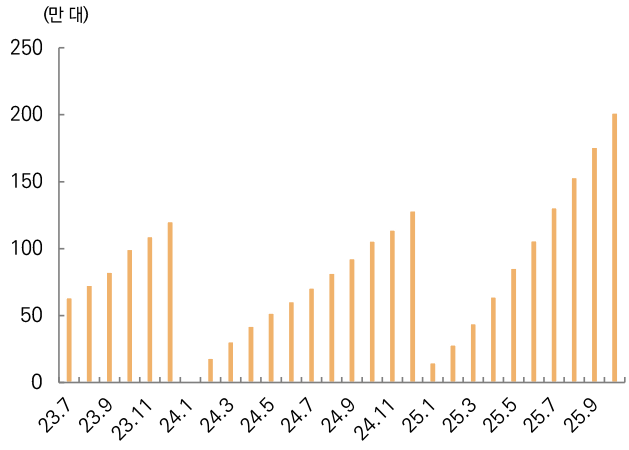

자료: 중국자동차산업협회, Win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중국 전기차 연도별 판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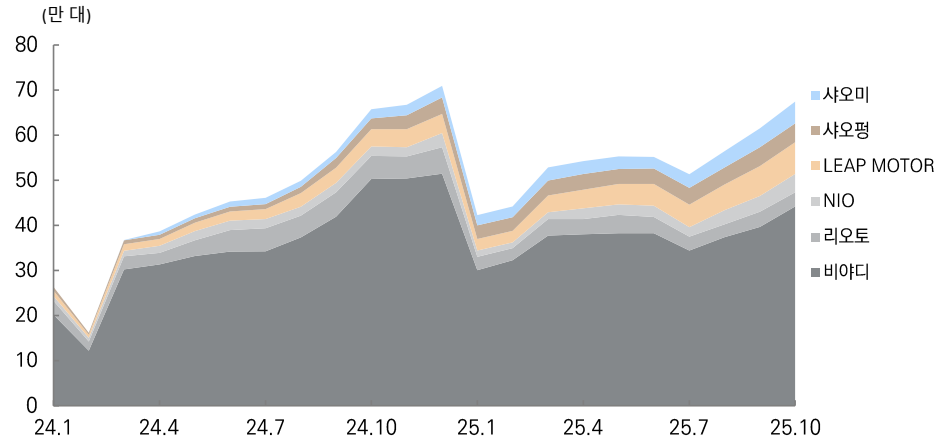

자료: 중국자동차산업협회, Win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중국 전기차 수출량 누적 추이**




자료: 중국자동차산업협회, Win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중국 주요 브랜드별 월별 판매량 추이**




자료: 중국자동차산업협회, Win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동영상 조사분석자료 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